



서울조합 주최 고등학교 인쇄과 학생 일본 연수로 미래전문가 양성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충원)의 기능인력양성위원회(위원장 이순석)는 지난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동안 서울공업고등학교와 서울북공업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20명과 함께 일본 미쓰비시 본사 및 돛판인쇄(주)의 생산 공장인 칸나베 돛판인쇄사를 방문했다.

인쇄가 21세기 이끌 유망 업종임을 재확인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인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쇄과 고등학생들이 인쇄문화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된 <미쓰비시 해외연수>가 윤한식 신영문화사 사장을 단장으로 하여 10월24일부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

됐다. 이번 연수는 서울조합이 주최하고, 미쓰비시중공업 지·인쇄기계사업부, (주)선일상사(대표이사 김형준), 영우피엠에스(주)(대표이사 이용섭)가 공동으로 후원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행사다. 해외연수에 대한 학교 측과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인쇄업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학생들 스스로 '인쇄'가 21세기를 이끌어갈 유망 업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쓰비시중공업 지·인쇄기계사업부 방문

교사를 포함한 20명의 연수생들은 미

쓰비시중공업 지·인쇄기계사업부를 방문, 인쇄관련 세미나를 통해 인쇄기의 A에서부터 Z까지 이론 학습시간을 가졌으며, 미쓰비시의 주력 상품인 다이아몬드 시리즈(매엽 및 운전기)의 조립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견학했다. 제판과 출력과정 그리고 인쇄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쇄물 제작이 완료되기까지의 공정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이 오가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번 인쇄기 생산현장 방문을 통해 수업시간에 말로만 들던 인쇄기의 구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인쇄기를 직접 시연해 보기도 했다. 또한 학생들은 프리프레스, 프레스, 포스트프레스를 포함한 '인쇄'의 모든 공정이 워크플로(Work-flow)를 통해 일



팔 통합되어 관리되는 과정을 매우 인상적으로 체험했다.

돛관인쇄(주)의 생산 공장인 칸나베 돛관인쇄사 방문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성실을 다하여 작품을 생산하여, 정보·문화의 기수로서 생활문화에 공헌합니다’라는 기업이념을 가진 칸나베 돛관인쇄사는 1991년 설립되었으며, 2004년도 매출액은 92억 8500만엔이다.

이곳 생산현장 관계자는 “철저한 보안을 위해 개방하지 않는 편이나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 학생들의 방문을 허용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해 이곳을 방문한

한국 연수생들의 진지하고 학구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해 이번 방문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돛관인쇄(주)의 생산 공장인 칸나베 돛관인쇄사는 깨끗한 작업환경, 정리정돈, 철저한 안전의식, 설비의 자동화로 완벽한 생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이곳을 견학하면서 우수한 품질의 인쇄물 생산을 위해선 제판에서부터 인쇄, 후공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생산관리가 이뤄져야 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윤환식(신영문화사 대표) 단장은 “인쇄산업은 디지털 환경의 만남을 통해 첨단 정보화산업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이번 일본연수를 계기로 우수 학생들이 인쇄

1~2. 연수단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방문, 회사 소개를 듣고 있다.

3~6. 연수단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인쇄물 제작 현장을 돌아보며 인쇄전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업체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이번 연수생들은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을 가슴깊이 새겨 인쇄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공고와 서울북공고는 미쓰비시사와 돛관인쇄(주)의 생산 공장인 칸나베 돛관인쇄사 방문 시 이번 행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조합은 세계화와 디지털화의 보급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외선진 인쇄기술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